

생활환경 경관개선을 위한 도시디자인 방향설정 연구

- 도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rban Design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Life Environmental Townscape

- Focused on the Planning Process for Dobong-gu Urban Design Master Plan -

문 선 욱

청운대학교 인테리어디자인학과 교수

Moon sun-wook

Professor, Dept. of Interior Design, Chungwoon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사례 및 도봉구 현황분석

- 2-1. 선진 사례분석과 시사점
- 2-2. 주민의식조사
- 2-3. 주요이슈별 현황분석
- 2-4. 분석 종합

3. 도봉구 도시디자인 구상

- 3-1. 비전과 방향설정
- 3-2. 도시디자인 구조 설정

4. 축과 권역별 세부계획

- 4-1. 축별 세부계획
- 4-2. 권역별 세부계획

5.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도시디자인이란 도시 거주민의 살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한 사고, 행위, 활동에 대한 디자인의 총체다. 도시의 이미지는 지역주민의 생활상이 총체적으로 반영되고 투영되며, 이로써 지역 정체성이 표현된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는 문명의 이기와 무분별한 개발로 기계적 편리성은 누릴 수 있게 되었으나, 정체성이 상실되어 무미건조하고도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고유의 도시경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그 결과는 현상만을 중시한 나머지 또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근본적 가치 주체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유익을 주며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도시디자인의 수립방향 설정을 위해 해외사례와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이에 합당한 도시디자인 권역 및 축의 설정과 기본계획의 방향과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도봉구 행정구역 전 범위이며, 내용적 범위는 도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디자인 기본 구상단계로 한정하였다.

도시경관은 단기간에 조성되거나 일회성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므로, 도시디자인 기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토대로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이때, 관련된 모든 분야 간에 효율적 연계와 시민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총체적인 시스템의 구축은 주민생활에 유익을 주는 진정한 도시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다.

주제어

도시디자인, 경관, 생활환경

Abstract

You can say that urban design is the whole of thinking, behavior, and activity for establishment of residents' good living environment. The Image of city must have present a local identity by an overall reflection and projection of inhabitants' living conditions. We could enjoy a mechanical benefit until now by the modern conveniences and indiscriminate development of the city. However, this results in a tendency come up other problems. And cityscape has made a negative image by losing the city's identity. Urban design activities mus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provide utilities and instill a sense of civic pride for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duct issues caused by the case studies and residents' consciousness for setting up an urban design objectiv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of Dobong local district on the basis of present data, and to suggest a master plan according to the suitable urban axis and region.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study is Dobong district in Seoul. It limits the step of design conception o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Dobong urban design master plan. We must change the progressive urban design action for setting an urban goal because that cityscape won't be created in a short period time and at one swoop. The main urban design agent must be effectively connected to related fields and support various programs to citizen's activities. This holistic system can realize a true urban design for citizens.

Keyword

urban design, townscape, life environment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려 생활하는 공간이며, 도시디자인이란 도시 거주민의 살기 좋은 환경구축을 위한 사고, 행위, 활동에 대한 디자인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의 도시디자인은 케빈 린치(Kevin Lynch)가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그는 저서 '도시의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에서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공공의 이미지'는 도시민의 대다수가 공유하는 심상으로 시민이 그린 인지도의 분석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서 효율적인 삶의 부여와 가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시는 다목적이며 이동이 가능한 조직이라고 평가하고, 완전성을 추구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건설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초지자체의 도시디자인을 위한 기본계획(Master Plan) 수립에서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행계획과 전략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것은 도시디자인 기본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중장기인 비전을 토대로 행정 분야에서 제시하는 기초적 방안이기도 하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는 다양한 분야 간의 기획조정과 컨트롤이 필요하며, 실행과정에서는 주민과 행정가, 사업가, 계획가, 설계자 간의 합의형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기초지자체는 상위 광역지자체의 도시디자인 방향에 부합하면서도 지방화 시대에 걸맞도록 독자적인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도시공간체계를 정립하여 도시디자인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외사례와 주민의식조사를 통해 이슈를 도출하고, 이슈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여 이에 합당한 관내의 도시디자인 권역 및 축 설정과 기본계획의 방향 및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도봉구는 서울 최북단에 위치한 동북권의 중심으로써, 전체면적은 20.8km²으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15개의 동과 북한산 국립공원이 입지하고 있으며, 공원녹지의 면적이 구 전체면적의 52.5%에 달한다. 동남쪽으로 노원구, 서쪽으로 강북구, 북쪽으로 경기도 의정부와 접하고 있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도봉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디자인 기본 구상단계로 한정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첫째, 도봉구와 유사한 선진사례를 분석하여, 도시디자인을 위한 주요이슈를 도출한다.

둘째, 도시디자인은 궁극적으로 주민을 위한 것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 경관자원에 대한 의식과 경관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한다.

셋째, 앞서 도출된 주요이슈에 대한 도봉구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잠재력을 도출하고 도시디자인의 방향을 설정한다.

넷째,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구상을 위하여 도시디자인의 권역과 축을 설정하고, 각 권역과 축별 도시디자인 개념과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다.



[그림 1] 도봉구 전경

2. 사례 및 도봉구 현황분석

2-1. 선진사례 분석과 시사점

1) 아트폴리스

일본 큐슈 지방 중앙부의 넓은 분지에 자리 잡은 인구 200만의 도시로 1988년부터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라는 건축문화사업을 통해 공간적인 도시의 환경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곳은 1953년 공장의 수은이 물과 환경을 오염시켜 수은중독 환자가 다수 발생하여 사망한 악화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자 풍부한 문화재와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새로운 문화도시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건축물 축조와 리모델링을 통해 구마모토를 세계적 건축문화도시로 조성하는 것이다. 전략을 분석해보면 도시조직을 이해하여 가장 효과적인 장소에 거점을 확보하고 다른 시설들로 뒷받침하였으며 외부적 이미지구축과 더불어 구도심의 재활과 과거의 공업지역 정비, 손상된 도시하부구조의 회복 사업 등 도시 내부 환경을 정비하여 도시거주자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준공업지역과 도시시설물이 다수 존재하는 도봉구 도시디자인에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또한 사업 수행단계에서는 공공이 주도하는 아트폴리스 사업과 주민 참여가 필수적인 마찌즈꾸리를 연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이 어우러져 만들어가는 도시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

다.

2) 코호쿠 뉴타운

도시디자인의 기본개념은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농업의 확립 및 도시와 농촌의 조화, 시민참가에 의한 도시디자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기능 복합도시의 건설이다.

기존 녹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뉴타운 건설의 효과를 이루기 위해 교외부 도시화의 흐름과 자연과의 조화를 기본으로 한다. 도시디자인 방향설정 배경이 되는 입지와 주변 환경은 도봉구와 흡사하다.

[표 1] 코호쿠 뉴타운과 도봉구 비교

구분	코호쿠	도봉구
위치	요코하마 도심부에서 북서쪽으로 약 12km	서울시 도심부에서 북동쪽으로 약 12km
총면적	25.3km ²	20.8km ²
시가화 면적	13.17km ² 로서 전체면적의 약 50%	북한산 국립공원을 제외할 때, 구 전체 면적의 약 50%
녹지 현황	아름다운 강과 방목림, 죽림 등 양호한 산림과 농경지 소유	북한산 국립공원 등 풍부한 자연자원
공원 현황	종합공원 1개소 지구공원 4개소 근린공원 15개소 어린이공원 65개소 → 공원을 연결하는 녹도 5개소	국립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어린이공원 37개소 →공원을 연결하는 녹도 0개소

녹지공간을 도시환경의 핵으로 토지이용을 체계화 하였으며, 농업전용지구지정에 의하여 농업을 희망하는 가구에게 지속적으로 생업이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그 외의 녹지와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녹지 네트워크, 보행자 전용 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그린 매트릭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을 추구하고 있다. 간선도로와 철도에 의한 원활한 광역교통체계 수립과 광역대응의 중심지구를 부여하여 타운센터를 조성하고 요코하마의 부도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2] 코호쿠 뉴타운 도시디자인 주요전략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도로 등 다양한 커뮤니티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도로로는 9m폭의 보차공존 도로로써 보행자에게 좀 더

넓고 다양한 보행공간을 제공하고 차량운전자에게는 식재와 포장재를 이용하여 안전한 주행을 유도하는 특징이 있다.

3)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의 도시디자인 역시 그 접근방향 및 내용에 있어서 공원녹지, 오픈 스페이스 및 자전거·보행환경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시적 차원에서의 오픈 스페이스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보행자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존 모더니즘 도시와는 차별화된 생활중심의 디자인이 전개되고 있다.

[표 3] 코호쿠와 샌프란시스코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코호쿠 그린매트릭스	샌프란시스코 오픈스페이스 계획

이상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활력 있는 생활도시로의 전제조건은 크게 보행자를 위한 환경조성, 도시차원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구축,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조성의 3가지 핵심이슈를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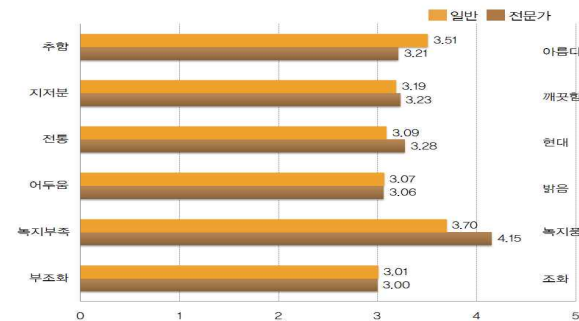
[그림 2] 도출된 도봉구 도시디자인 주요 이슈

2-2. 주민의식조사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목적으로 2009년 4월에 1차, 7월에 2차로 나누어, 12문항의 직접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도봉구 주민 271명과 관련 전문가 47명 등 총 321개의 유효표본이 추출되었으며, MS Excel2002와 SPSS v.12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방향설정과 관계된 도시이미지 평가, 대표적 자원과 경관문제의 원인 등 3가지 항목의 결과를 서술하였다. 도봉구의 도시이미지는 평가는 6가지 형용사에 의한

5점 리커트 의미분별 척도에 의하였다.

도봉구의 도시이미지 조사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는 전통적-현대적 항목과 녹지공간에 대하여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어, 일반 주민이 전문가보다 조금 더 현대적이고 보다 녹지가 풍부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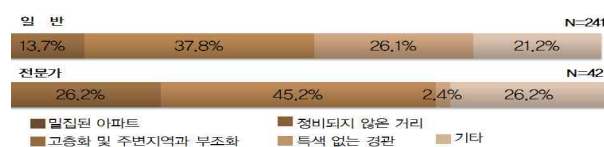
[그림 3] 도봉구 도시이미지 평가

대표적 자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역사·문화·자연 경관자원 중 특히 자연경관자원에서 일반 주민과 전문가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1) 일반인은 주로 도봉산(49.1%)과 북한산근린공원(19%)을 대표적인 자연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도봉산(85.1%)을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4] 도봉구 경관자원에 대한 인식평가

도봉구의 경관 문제 원인으로는 일반 주민은 정비되지 않은 거리(37.8%), 고층화 및 주변 지역과 부조화(26%), 특색 없는 경관(21.2%) 순으로 그 원인을 꼽았으며, 전문가는 정비되지 않은 거리(45.2%), 특색 없는 경관과 밀집된 아파트(각각 26.2%)라고 인식하고 있었다.2)



[그림 5] 도봉구 경관문제에 대한 인식평가

결국 주민들의 경우 자연자원은 풍부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도봉산 국립공원이라는 이미지적 자연자원을 압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근린공원 등에 대한 인식과 직접 생활하는 생활공간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전문가 집단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시적

- 1)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음(23.401***).
- 2) 두 집단 간 유의적 차이를 검정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음(13.72**).

으로는 생태, 자연 도시를 주요 목표로 하지만, 전략적으로 자연자원과 생활중심 공간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녹지를 포함한 공공 공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슈가 도출되면서, 코호쿠 뉴타운의 사례분석에 의한 보행자를 위한 환경조성, 도시차원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구축,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등 도시디자인의 3가지 주요 이슈와 그 맥락이 합치됨을 알 수 있다.

2-3. 주요이슈별 현황분석

1) 오픈스페이스

도봉구 2006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 15.843km 연장의 하천에 대하여 다양한 생물종을 유치하고, 자정능력을 회복하는 찾아오는 하천, 자연관찰 기능을 제공하는 접근성이 좋은 보는 하천, 다양한 휴게 및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만지는 하천, 다양한 곤충을 유도하여 초지경관을

[표 4] 도봉구 주요가로와 오픈스페이스 현황요약

서울 디자인거리	선형 보행공원
A . 도봉산길 B . 노해길 (창동 이마트~도봉경찰서)	a . 발바닥 공원 b . 서원아파트 앞 중랑천변 아파트 단지 사이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
수변녹지 + 자전거도로	개발/개선 예정 하천변
① 도봉천 ② 우이천 동남부 ③ 중랑천광역 자전거도로망	(1) 방학천 (2) 우이천 덕성여대구간
가로수길	
① 한신아파트 서측 도로 현재아파트 경계부분 양호한 가로수열 조성 ② 주공아파트 동측 : 가로 벚꽃길 조성 ③ 도봉역길 : 현재 고가구조물 경계부분 가로수열 조성 ④ 해등길 : 가로수 보호덮개 교체. 아파트 입면과 함께 선형 가로경관 형성	
⑤ 월천길 학교 담장개방과 연계된 주공아파트 단지 중심 녹화가로	
연결취약구역	

연출한 느끼는 하천으로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하천공간을 포함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 녹지들과 초안산 근린공원, 발바닥공원과 같이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간이 산발적으로 입지 구성되어 상호 간을 연결하는 공원녹지체계가 미흡하고 각각의 공간에 대한 인지성과 이용도가 떨어져,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양호한 가로수들로 인해 풍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인접한 산재된 공원 또는 아파트 연결부와 같은 사적영역들의 관리 불량으로 도시경관이 쇠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관내의 하천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접근이 용이한 공공공간과 각각의 녹지 공간 간의 연계성을 확보한다면, 풍부한 녹지네트워크가 조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2) 보행환경

[표 5] 도봉구 보행환경 현황조사 요약



주거지역 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등의 과밀개발로 인한 주차장 부족은 노상주차의 수요를 야기하여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주거, 상업, 공업 등 다양한 기능과 용도의 혼재로 말미암아 교통 혼잡 및 보행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는 구조물과 도봉로, 마들길 등 간선도로에 의해 동서가 단절됨으로써 도봉구 동서에 위치하고 있는 중랑천, 도봉산 등 천혜의 자연자원들 간 연계가 어려워 보행환경의 불연속성, 접근성 약화, 공간 인지도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그나마 동서를 연결하는 경원선 하부통로마저도 그 높이가 낮거나, 통로주변에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환경은 불량하다.

3) 자연과 연계된 주거환경 조성

도봉구의 상위 및 관련계획에서는 도봉산과 북한산 국립공원, 도봉천, 방학천, 우이천을 중심으로 생태적 개념이 도입된 생활하천 조성 계획 등이 2009년 3월 현재 수립 및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구릉지 주변의 거주환경 개선 등 자연적 경관특성이 강화된 매력적인 정주공간 조성을 목

[표 6] 자연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구조물 현황



표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봉구 환경보전계획 2015에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공원 및 녹지를 조성하여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공원 및 녹지계획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으며, 보행환경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되고 있다.

아파트 밀집지역인 창동과 방학동, 그리고 도봉동의 일부지역의 아파트 담장은 대부분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간의 통합에 의한 디자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방음벽은 주로 경원선을 따라 상당히 거대한 스케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로의 보행성과 친근감을 떨어뜨린다. 옹벽의 경우 주로 녹지공간과 도시공간의 경계부를 따라 분포하는데, 서울시의 옹벽관련 가이드라인에 모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절한 상태이다.

2.4. 분석 종합

도봉구 도시디자인을 위한 3가지 주요이슈별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이슈인 도시차원의 오픈스페이스 체계 구축에서는 중랑천, 우이천, 도봉천 및 방학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변녹지공간의 구성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연결성이 미흡하다. 그리고 하천의 수변공간을 포함하여 북한산 국립공원, 초안산 근린공원 등 자연 공원녹지의 연결체계도 미흡하여 단절되어 있으며, 체계적인 계획과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6] 녹지공간을 단절시키는 도로와 단지

두 번째 이슈인 보행자를 위한 환경 조성에서는 가로에 다양한 용도와 기능이 혼재되어 있어, 보행환경이 산만하고 불량하다. 특히 도봉로와 마들길 등 간선도로와 고가구조물에 의한 동서단절이 심각하였다. 이러한 단절에 의한 취약한 보행연속성은 도봉구 주민들의 생활공간과 빼어난 자연자원들과의 연계가 어렵게 하고, 천혜의 자연자원들이 갖는 상징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림 7] 불량한 보도블록과 보행환경

세 번째 이슈인 자연과 어우러지는 주거환경 조성

에 대한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체와 부분이 조화되지 못하고 총체적인 계획 개념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즉 계획과 시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생태관련 사업은 자연공간과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로 생활하천조성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계획된다. 하지만 도봉구 전체의 통일된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아파트 담장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경원선 주변의 방음벽과 녹지 및 하천 주변의 옹벽은 경관을 해치고 주변공간과의 단절을 야기하고 있다.



[그림 8] 주변과 단절을 야기하는 방음벽과 옹벽

이와 같이 3가지 이슈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봉구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모든 계획과 사업 등의 고찰을 통하여 통일된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디자인 구조를 설정하여, 보행환경 취약구역의 개선과 함께, 디자인 잠재요소들의 연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실천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한다.

3. 도봉구 도시디자인 구상

3-1. 비전과 방향설정

도봉구 고유의 특성과 지역성을 최대한 살려 정체성을 구현하고, 서울 동북권의 대표구로써 미래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 앞서의 현황분석과 주민의식조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도시계획 및 정책 등과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이며, 맥락을 같이하는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림 9] 도봉구 관내 도시디자인 관련 추진사업

도봉구 도시디자인 권역은 5개의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현재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도봉산 인접지역은 경관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상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써, 저층주거권역으로 설정하였다. 방학동과 창동 3종 주거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으로 고층주거권역으로, 중랑천 인근의 도봉동과 방학동 지역은 중랑천변 권역으로, 우이천 인근의 쌍문동, 창동 지역을 우이천변권역으로 설정하였다. 도봉산 입구부분의 개발제한구역과 창동역 인근의 일반상업지역 일대는 특화기능권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2] 도봉구 도시디자인 권역 개요

4. 축과 권역별 세부계획

4-1. 축별 세부계획

1) 대표가로축

대표가로축은 도봉로와 마들길로 구성된다. 도봉로에는 도봉산역, 도봉역, 방학역, 쌍문역이 있으며 마들길에는 랜드마크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역세권과 주요건축물들이 입지하고 있으므로 가장 활성화되어야 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만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역시 개별적으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는 듯하나, 형태, 색상, 크기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중복 설치되어 있는 등 시스템적 디자인이 부재하여 가로의 이미지는 산만하고 조화롭지 못하다. 대부분 건축물도 형태, 높이, 재료 및 색채가 제각각이며, 공공과

접하는 공간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 일부지역은 슬럼화 되어 불량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있고, 중랑천변으로 가는 보행로는 구조물로 인해 단절되어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접근로 환경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9] 대표가로축 유형



대표가로축은 그 특징에 따라 역세권 가로형, 랜드마크 가로형, 경관취약지역형으로 유형을 분류하였다.

도시디자인의 실천계획에서는 도봉구 환경색채 팔레트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의 보도패턴을 통일성과 다양성을 함께 추구하며, 중랑천으로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요소를 적극 개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표가로축 중 역세권 가로의 도시디자인은 시설물의 오브제화, 보도패턴 특화 등 “점”적인 요소로써 장소성 강화를 우선으로 하며, 랜드마크 가로는 주변의 랜드마크 건축물과 공개공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가로디자인을 정비조성하고, 경관취약지역은 녹화와 색채를 통하여 취약요소의 완화를 목표로 한다.

2) 구조물축

경원선과 지하철 4호선을 중심으로 설정된 구조물축은 도봉구 도시공간단절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표 10] 구조물축 유형



구조물축의 도시디자인을 진단해보면, 경원선 철도와 준공업 지역이 인접하여 소음, 진동, 공해 등으로 매우 열악하며, 역세권 주변에 원색적 돌출간판과 입간판으로 시각적 혼란은 물론, 좁은 도로 여건에서 통행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개발지역은 저층의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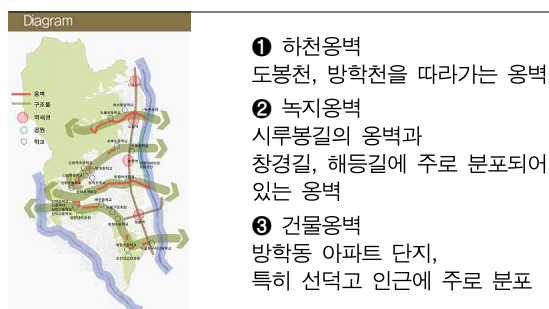
존 건축물과 신축되는 중·고층 건물 간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부조화와 경원선 철도로 인한 단절로 주거경관이 저해되고 주민생활환경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조물 하부 통로는 저저분하고 어두워 심리적 위축감이 들며, 복잡한 도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을 통해 보행자의 쾌적한 동·서간 연결을 꾀할 필요성이 있다.

구조물축에 의해 단절된 동·서간을 연결하는 구조물 유형은 게이트형, 복도형, 열주형으로 분류된다. 도시디자인의 개념은 동서방향 연결로의 통합디자인을 통하여 구조물 하부공간을 특화하는 것이다. 실천계획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천정고의 높이를 고려하여 조명등을 설치하고, 밝고 경쾌한 색감의 재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3) 동서자연축

도봉구의 동서자연축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적 요소가 매우 풍부하지만 수변 및 녹지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랑천과 우이천에 비해 도봉천, 방학천 등 지역하천에 대한 활용도는 매우 낮다. 녹지와 하천으로 둘러싸인 가로 환경이 옹벽 및 교량으로 인해 경관 저해 및 주민 생활에 위압감을 들게 한다. 따라서 하천과 녹지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옹벽들을 녹화 등으로 자연과 연계될 수 있는 정비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옹벽을 주요 축 상의 대표요소로 활용하여 하천옹벽, 녹지옹벽, 건물옹벽으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경관을 개선하고, 동서방향으로 수변과 녹지를 연결하여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표 11] 동서자연축의 유형



디자인 개념과 목표는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써, 다양한 녹화방식 개발과 계획을 적용한 “축”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옹벽의 통합디자인을 바탕으로 상징적인 선형공간을 만들되, 계획된 축 상에 위치하는 부분적인 개별사업들은 인접한 곳에 조성된 옹벽과 동일한 방향의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화를 꾀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4.2. 권역별 세부계획

1) 우이천변 생활권역

우이천과 접하고 있으며, 쌍문근린공원과 초안산 근린공원이 북측 경계부에 자리하고 있어 녹지공원자원이 풍부한 편이지만, 권역 내부로 들어갈수록 녹지가 부족하다. 특히 준공업지역 내의 주거환경은 개별 공장들과 주거지가 혼재하여, 공업, 상업, 주거 기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다른 기능들이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어 열악하며, 이면도로의 불법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또한 노후된 불량 건축물의 외관이 경관 주요소로 인식되고, 보행로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며 가로시설물 정비 미흡하여 지역 특색이 없고, 수준 낮은 경관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표 12] 우이천변 생활권역 개요



도시디자인의 목표는 녹지와 수변의 연결축을 조성함으로써 주변 자연자원의 연결을 강화하고 녹지 단절지역을 개선하여, 우이천과 주변 근린공원의 접근성 및 이용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건축물, 공공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에 있어서도 녹화를 우선한다. 구체적인 도시디자인 실천계획에서는 가로수 보강, 띠 녹지 확충, 공개공지 녹화 등을 우선 시행하고, 주요 축에 면한 건축물들의 전면공간과 옥상, 벽면 등의 녹화를 고려한다.

2) 중랑천변 생활권역

중랑천변 생활권역은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과 접하고 있으며, 경원선 철도로 인해 단절되어 동서방향이 중랑천 접근성이 열악하다. 즉 도봉구를 아우르고 있는 수변 공간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자연스럽게 연계 유도되지 않고 있다. 서원아파트 동측으로는 잘 조성된 중랑천 수변공간이 있으며, 이 공간을 중심으로 연결체계를 조성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도시디자인 목표는 하천으로의 보행 접근성, 자전거 접근성을 강화하여 이용도를 증가시킨다. 그 실천 계획으로는 가로의 시각적 물리적 연속성을 위한 공공 공간 및 시설물 디자인, 통일된 보도블록과 시설물 설치, 보행성을 강화하는 무장애 디자인 적극 권

장한다. 또한 접근로 축상에 위치하는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들은 인접가로와 조화를 이루고 통합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접근로 축의 상징성과 장소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표 13] 중랑천변 생활권역 개요

Diagram	-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3개 하천으로 둘러싸인 권역 - 하천접근로의 환경을 개선하여, 수변공간으로의 주민 서비스 범위를 확장 - 일관되고 통일된 디자인을 통하여 접근로의 상징성, 인지성, 장소성을 강화
---------	---

3) 고층주거권역

고층주거권역은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고 다른 권역들에 비해 신축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쾌적한 편이지만, 지역의 특징 없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있다. 특히 아파트 연접부 공간의 불필요한 경계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어 동선을 차단하는 등 아파트 옥외공간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

[표 14] 고층주거권역 개요

Diagram	- 보행목적지로 향하는 주거지역가로를 중심으로 환경 개선 또는 조성사업 구상 - 보행목적지의 종류 : 창동역, 녹천역, 구민회관, 도봉문화정보센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발바닥공원, 쌍문근린공원, 초안산근린공원, 초·중·고등학교
---------	---

도시디자인 목표는 주거중심지역과 주변의 역, 공공시설, 공공 공간 등의 보행목적지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가로를 조성하고 환경을 개선한다.

실천계획으로 우선 주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아파트 경계 허물기를 통하여 옥외공간의 통합설계와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 속의 아파트단지를 구현한다.

4) 저층주거권역

저층주거권역은 계획개발이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노후되거나 불량한 주택들이 많은 권역으로 주거 환경 및 경관이 양호하지 못하며 녹지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주차장 부족이 심각하여 좁은 골목길 주차로 말미암아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어렵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낙후된 환경을 도시재생과 활성화 계획에 따라 배경이 되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되도록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해나감이 필요하다.

디자인 목표는 저층주거지역을 특화하여 도봉산

경관과 어우러지는 마을 형성하는 것이다.

실천계획으로는 가로변 띠녹지 확충과 Green Parking을 통한 도봉산 녹지경관과 조화된 골목길 환경개선, 토지매입을 통한 쌈지공원 또는 주차장 공원 조성 등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이다. 또한 벽면 부착식 보행등 설치로 야간의 어두운 골목길 환경을 개선한다.

[표 15] 저층주거권역 개요

Diagram	-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의 중점관리 구역임 - 도봉산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저층 주거지역 - 도봉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골목길 환경 개선이 목표임
---------	--

5) 특화기능권역

① 창동역세권

주변에 경관취약요소가 다수 존재하나 앞으로 발전 잠재력이 매우 커서, 향후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가 될 곳이다.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에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4호선 고가철도의 미래상과 조화를 이루며, 창동 민자역사와 오픈 시기를 같이 하는 시범사업이 필요한 권역이다.

[표 16] 특화기능권역-창동역세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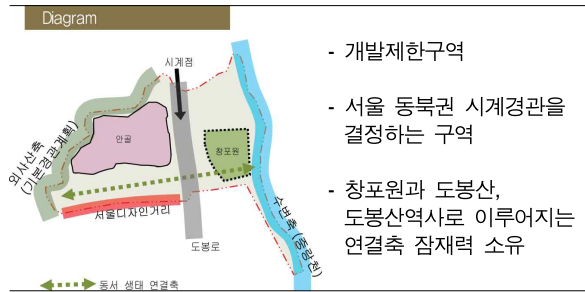
Diagram	- 일반상업지역 또는 준공업 지역 - 서울시 야간경관계획의 시범사업지의 일부 - 보행가로 네트워크와 옥외공간 활성화를 통해, 활발한 문화·상업 활동지원 - 장소 위계에 맞는 장소성 구현
---------	--

도시디자인의 목표로는 동북권 제1경제 거점으로 서 상업·문화기능의 주이용 시간대와 어울리는 “빛” 갤러리 개념의 도입과 도시갤러리와 연계한 장소 만들기 작업으로 장소성을 강화하고, 가로 및 광장 개선, 경관취약요소를 개선한다.

② 도봉산역세권

생태하천공원, 창포원 등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근로 즉 가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차량기지 등에 대한 시각적 폐쇄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도봉산역 민자 역사의 적절한 계획을 통하여 동서방향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표 17] 특화기능권역-도봉산역세권 개요



도시디자인 주요개념은 생태축을 연결하는 생태적 통합 환경구축과 도봉산-안골(지구단위계획 지구)-창포원-중랑천을 잇는 디자인 거리 조성, 공공시설, 구조물, 경관취약요소의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으로의 개선, 동서방향 연결로 형성, 서울시 동북권 시계경관 거점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화되는 자연생태와 조화로운 환경색채, 야간경관, 시설물 계획이 필요하다.

5. 결 론

도시의 이미지는 자연스런 지역주민의 생활상이 총체적으로 반영, 투영되어 형성되고 이로써 정체성이 표현됨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명의 이기에 의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기계적 편리성을 가져왔을지는 모르나, 조각난 도시 파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무미건조하고도 부정적 도시이미지를 형성하였다. 이에 지자체들은 경쟁적으로 지역고유의 도시경관 이미지 회복을 위해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현상만을 중시한 나머지 또 다른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근본적 가치의 주체이자 대상인 주민들에게 생활에 유익을 주고, 수준 높은 삶의 질을 유도하는 도시디자인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밀착된 도시디자인 방향수립의 과정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트폴리스, 코호쿠 뉴타운, 샌프란시스코 등의 선진사례분석을 통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개념과 프로그램으로부터, 도봉구에 적용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 개념 즉, 보행자를 위한 환경조성, 오픈스페이스 체계 구축, 자연과 조화된 주거환경 조성의 3가지 핵심이슈를 도출하였다.

둘째, 도시경관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식조사에서 두 집단 모두 비슷한 경향을 보여, 앞서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이슈와 그 맥락이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전문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이미지에 의해 지역을 평가하고 거시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항상 접하는 미시적 생활공간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3가지 이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계획 방향은 관련된 모든 계획과 사업을 고찰하여 통일된 방향과 비전을 설정함으로써, 연계방안을 확보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디자인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세부적인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구조를 설정하였다.

넷째, 설정된 도봉구 도시디자인 축은 대표가로축, 동서자연축, 구조물축의 3개축으로, 도시디자인 권역은 저층주거권역, 고층주거권역, 중랑천변권역, 우이천변권역, 도봉산 입구부분과 창동역의 특화기능권역으로 5개 권역을 설정하여, 개별적으로 특화된 디자인 방향을 갖도록 세부계획의 방향을 수립하였다.

도시경관은 단기간에 조성되거나 일회성 계획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속성을 가지므로, 장기적인 도시비전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되, 관련된 모든 분야 간 효율적 연계시스템 구축과 시민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총체적인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본 도시디자인의 방향설정에 대한 과정적 연구가 주민생활에 유익을 주는 진정한 도시디자인을 구현하는 기초가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Kevin Lynch(1960), The Image of the city, MIT Press.
- 한국경관협의회(2008), 경관법과 경관계획, 보문당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6),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2006), 서울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서울시 기본경관계획, 서울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시가지 경관계획, 서울시
- 디자인 서울 총괄본부(2008), 디자인 서울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 도봉구 산업환경과(2008), 도봉구 환경보전계획
- 도봉구, 2020 도봉구 도시발전계획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2005), 도봉구 준공업지역 관리방안, 도봉구
- 대한건설터트(2008), 도봉 무수골 제1종 지구단위계획, 도봉구